

아침세평

박병진

국가교육위원회 특별위원
금구초 교장



초등학교 6학년 과학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꽃은 씨를 만듭니다. 수술에 있는 꽃가루는 곤충, 새, 바람, 물 등의 도움으로 암술에 옮겨붙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수분이다. 여기에서 수분은 한자로 받을 수(受), 가루 분(粉)이다. 지금까지는 수분 또는 꽃가루 반입으로 배우던 것이, 이번에 새로 바뀐 교과서에서는 수분이 빠지고 ‘꽃가루받이’로만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교단에서 수십 년간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러한 교과서의 변화는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교과서에 나오는 무겁고 어려운 개념어들을 가르치느라 고생을 좀 했기 때문이다. 그럴 때는 어휘의 한자 뜻풀이를 해주면서 가르쳤다.

초등학교 교과서는 평생 배움의 바탕을 다지는 가장 뜻 깊은 책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교과서의 글들은 학생의 눈높이에 다다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평소에는 좀처럼 쓰지 않는 어려운 한자말로 이뤄져 있다.

낱말의 뜻을 곧바로 머무어 짐작할 수 없으니, 그 뜻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은 처음부터 너무나 어렵다. 결국 아이들은 뜻을 아는 대신 글자 자체를 아무 뜻도 모른 채 통째로 외우는 길을 고르게 된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공부가 더 힘이 든다.

충분히 쓸 수 있는 쉬운 우리말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교과서 속 어려운 말을 바꾸자

아무런 고민 없이 교과서에 어려운 한자 말만을 우겨 온 것은, 배우는 아이들에게 쓸데없는 괴로움을 안겨주는 일 이 된다. 교과서 속 어려운 말을 무작정 외우게 하는 것보 다 한글 등 쉬운 말을 쓰면 그 뜻을 훨씬 뚜렷하게 알 수 있고 공부도 한결 쉬워진다.

오늘날, 글을 읽고 뜻을 아는 힘이 떨어지는 일이 큰 문제로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흔히 스마트폰이나 짧은 영상 매체를 탓하고 아이들이 책을 덜 읽는다고 꼬집는다. 이른바 문해력 문제를 말한다.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쥐여준 교과서가 과연 쉽게 읽어낼 수 있는 글인지부터 짚아프게 되돌아봐야 한다. 말의 벽에 부딪혀 첫걸음부터 주저앉은 아이들은 수업에서 멀어지고, 이는 곧 뛰어난기 힘든 배움의 차이로 이어진다.

실제로 교과서에 나오는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바꿀 수 있는 보기는 초등학교 과학 과목만 보이도 차고 넘친다.

4학년 과학 시간에 퇴적암의 종류를 공부할 때 ‘이암’, ‘사암’, ‘역암’이 나온다. 여기에서 ‘이(泥)’는 진흙이고 ‘사(砂)’는 모래, 그리고 ‘역(礫)’은 자갈을 뜻하는 한자다. 그러므로 이 낱말들 역시 ‘진흙암’, ‘모래암’, ‘자갈암’으로 곧바로 바꿀 수 있다.

또한 달의 모양을 배울 때 나오는 ‘상현달’과 ‘하현달’도 좋은 예다. ‘현(弦)’은 한자로 활시위를 뜻한다. 즉, 위를 향해 활 쏘는 모양이면 상현달, 아래를 향해 활을 쏘는 모양이면 하현달이라는 뜻이다.

사실 이 둘은 모두 반달이다. 하나는 초승달에서 커져 가는 반달이고, 다른 하나는 보름달에서 점점 줄어들어 그믐달로 가는 반달일 뿐이다. 그렇다면 아이들 처지에서

알아듣기 힘든 한자말보다는 ‘오른반달’이나 ‘왼반달’, 혹은 ‘위반달’이나 ‘아래반달’ 등으로 바꿔 부르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뿐만이 아니다. 비가 오면 흐르는 물에 의해 땅의 모양이 바뀐다고 배울 때, 교과서에는 물이 흠을 ‘침식’하고 ‘운반’해서 ‘퇴적’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다. 이른바 ‘침식 작용’, ‘운반 작용’, ‘퇴적 작용’이다. 조금 무리가 있을 지 모르겠지만, 이는 ‘깎는 일’, ‘옮기는 일’, ‘쌓는 일’이라고 알기 쉽게 바꿀 수 있다.

이처럼 조금만 짚어보면 쉬운 말로 바꿀 수 있는 낱말은 그야말로 수도룩하다.

물론 우리 교과서에는 선불리 가벼운 우리말로 바꾸기 어려운 낱말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그러므로 낱말을 쉬운 말로 바꾸어 가는 동시에, 교과서에 나오는 한자 어휘를 잘 가르치는 노력도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

낱말의 뿌리를 아는 기초적인 한자 교육도 꼭 필요하다는 뜻이다. 아이들이 뜻도 모르는 낱말을 통째로 외우게 놔둘 것이 아니라, 교과서의 알맞은 곳에 ‘한자 어휘 풀이 사전’이나 친절한 주석을 덧붙여 넣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된다.

쉬운 한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과감히 바꿔 말의 벽을 허물고, 남겨진 한자말은 풀이 사전을 통해 그 속 뜻을 찬찬히 밝혀줄 때 아이들이 문장을 읽어내는 힘은 비로소 깊어진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쉬운 교과서’, 그리고 어려운 말 뜻을 짚어주는 ‘친절한 어휘 풀이 사전’을 품은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배움의 기쁨을 더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기고

신민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인공지능이 산업의 언어를 바꾸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정교한 알고리즘도 사람이 먹는 쌀 한 그릇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지난해 일본이 겪은 쌀 파동은 자급률과 재고 같은 숫자가 실제 식량안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지역 농업 현장을 지켜봐 온 사람으로서 이 교훈을 우리 정부에도 던지고 싶다.

지난해 일본에서는 쌀이 사회문제가 됐다. 슈퍼마켓 진열대에서 쌀이 사라지자 정부는 비축미를 풀었다. 지난 8월 일본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국민이 먹는 열량을 기준으로 한 식량자급률은 37%로 1965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였다. 흥미로운 것은 같은 해 생산액을 기준으로 한 자급률은 오히려 66%로 올랐다는 점이다. 쌀과 축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돈으로 계산한 자급률’은 상승했지만 국민이 먹는 식량 가운데 국내에서 생산한 비중은 줄어든 것이다.

더 눈여겨볼 것은 파동의 원인이다. 일본 정부는 인구가 줄면 쌀 수요도 계속 감소하리라는 과거 추세를 근거로 수요를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 수요는 예측을 웃돌았고, 고온의 영향으로 쌀 생산 여건까지 나빠졌다. 정부상민간 재고는 있었지만 대부분 판매처가 정해진 물량이어서 비상시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결국 부족했던 것은 쌀의 절대량이 아니라 예상이 빗나갔을 때 버틸 수 있는 여유가 부족했던 것이다.

취재수첩

전남광주 상권에 드리운 ‘공실의 그림자’

윤용성

산업경제부 기자



최근 상가 건물 값을 지날 때면 유리창에 붙은 ‘임대’ 현수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두 곳이라면 흔한 풍경으로 넘길 수 있지만 같은 건물에서 여러 점포가 비어 있거나 한 블록을 따라 빈 점포가 이어지는 모습은 이야기가 달라진다.

통계도 이 같은 현장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 부동산원의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광주지역 일반상가 공실률은 16.50%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1분기

12.90%였던 공실률이 5년 만에 3.60%p 상승한 것이다. 전남지역도 같은 기간 9.73%에서 13.70%로 3.97%p 높아졌다. 일반상가 6곳 중 1곳 이상이 비어 있는 가운데 전남지역도 공실률이 5년 새 4%p 가까이 상승하는 등 전국과 비교하면 전남광주지역의 공실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문제는 숫자 자체보다 어디까지 공실이 번지고 있는가다. 광주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21년 13.96%에서 올해 17.62%로 3.66%p 상승했다. 소규모 상가도 5.99%에서 9.63%로 3.64%p, 1층 상가 역시 6.52%에서 8.68%로 2.16%p 상승했다.

전남지역에서는 소규모 상가와 1층 상가의 공실 확대가 더욱 가팔랐다.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1.32%에서 14.68%로 3.36%p 상승했지만, 소규모 상가는

5.73%에서 10.45%로 4.72%p 급등했다. 1층 상가 공실률도 3.10%에서 8.04%로 4.94%p 상승했다. 특히 전남 소규모 상가의 경우 공실률이 5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소비자가 지갑을 닫고, 매출이 줄고,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버티지 못한 자영업자가 문을 닫으면 다시 빈 점포가 늘어난다. 빈 점포가 자리 회피되면 주변 상권의 유동인구와 소비까지 위축될 수 있다.

임차인은 매출에 비해 높은 고정비를 감당해야 하고, 임대인은 장기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서 임대수의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상가 하나의 문제가 주변 상권 전체의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전남광주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공실률을 낮추는 단편적인 대책만은 아닐 것이다. 어떤 상권에서, 어떤 업종의 점포가, 얼마나 오래 비어 있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한다.

‘임대’ 현수막 하나를 치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다시 사람과 소비가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설

호남 재생에너지 전력망 수용확대 반갑다

호남권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망 수용능력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가 호남권 재생에너지 송전선 수용능력을 현재 37GW에서 2030년 64GW로, 배전망도 18GW에서 30GW로 늘리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전력망 혁신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비해 신규 전력망 건설에 의존하기보다 현재 구축된 송·배전망의 활용도를 높여 전력 수용능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먼저 전력망 포화 우려로 신규 재생에너지의 접속을 제한해 왔던 호남권 계통관리변전소에 대한 관리 지정을 이달부터 해제기로 했다. 이에 해당 변전소 주변에서 대기중이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전력망 접속이 다시 가능하게 됐다.

계통관리변전소는 수용 가능 접속용량 포화로 연계된 발전설비에 상시적인 출력제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정변전소로 한국전력공사가 지정·고시해 왔다. 그동안 배전선로에 여유가 있어도 최종 송전선로에 여유가 없으면 신규 발전소의 계통 접속을 제한해 규제효과와 무분별한 계통 선전후 사업을 미루는 행위를 막아 나를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첨단산업 확대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질실한 지역에서는 송전망과 배전망에 병목현상이 나타났다.

실제 호남권 변전소 87곳중 수용용량에 여유가 있는 곳이 절반이 넘는 46곳이나 되지만 송·배전망 부족으로 그동안 신규 발전설비의 계통 접속에 제약을 받아왔다.

또 전력망 병목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송·배전망이 포화상태가 될 경우 발전출력을 줄이는 조건으로 전력망 접속을 허용하는 ‘유연접속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어 호남권 포화변전소에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점에 다시 공급하는 대형 ESS(Energy Storage System·에너지저장시스템)를 설치해 전력망을 실질적으로 늘일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력망 용량을 선점한 뒤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장기 지연 사업자의 물량도 회수해 접속 여력을 확보한다.

이번 전력망 수용 능력확대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간접적인 전력 기반 확충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반값여행’ 전남광주 전역 확대 필요하다

‘강진 반값여행’이 전남광주 전역으로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최근 통합상향점검회의에서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강진군이 지난 2024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 정책은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얹다뒹 벤치마킹한 모범사례였다. 이는 한마디로 관광객이 지역에서 쓴 여행경비의 절반을 지역화폐 등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인데 그 효과는 기대 이상이였다.

관광객에게 단순히 여행경비를 할인해주는 데 그치지 않고 환급액을 지역에서 다시 소비하도록 해 숙박·음식점과 소상공인, 농수축임산업 등으로 관광소비를 확산시켰다. 관광객과 지역 모두 만족시키는 좋은 정책이 된 것이다.

정부가 이 정책의 명칭을 ‘지역사랑 휴가지원’으로 변경하고 시범사업에 나설 정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광주에서는 영광·영암·장흥·강진·해남·고흥·완도 등 7개 지역이 선정됐다.

또 무안군은 자체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2026 갯벌에(愛) 무안 반값여행’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파생된 전남광주 8개 시·군 21개 섬을 대상으로 여행경비의 절반을 돌려주는 ‘전남광주 섬 반값여행’도 지난달부터 운영되고 있다.

사실 반값여행의 확대는 풍부한 관광자원에 비해 부산, 제주, 강원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광객은 많지 않는 전남광주에게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저렴한 비용 등 어떤 이유에서든 전남광주를 방문할 경우 지역의 숨은 매력을 발견하고 빠질 수 있게 돼 재방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부족한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다.

하지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이 관건이다. 현재 정부의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과 같이 지역당 10억원(27개 시·군·구)을 투입한다고 할 경우 당장 270억원이 필요하다.

통합특별시는 정부 공모사업 활용, 지역별 사업비 차등 분담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식을 면밀히 검토해 이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당장 눈앞의 ‘실’보다는 앞으로의 ‘득’이 많은 정책이기 때문이다.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 장 정영민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40 산업경제부 370-7020 사 회 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논 설 실 370-7200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월간)	편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광남신문과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광남신문(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